

##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,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

### 1. 관련 기사

- 2.25.(수) KBS 뉴스,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? “위에서 회유해보라고”

- 다음달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협력업체, 즉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상황에서 동희오토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음
- 동희오토는 생산직 직원 1,200여 명 중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 상황에서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음

### 2. 설명 내용

-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
  -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
- 한편, 3.10.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·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,
  -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소지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여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음
  - 아울러,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노사관계법제과	담 당	사무관	김택수 (044-202-7670)

